

VIP

머니투데이

≡ 뉴스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MT리포트

속보 이원석 "민원인들은 응급"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VIEW 34,306 | 2016.08.08 16:43



[FACTORY]日업체 비웃음 딛고 시장 개척... 10년 만에 생산량 100배 '절대 강자'

[편집자주] 팩트(Fact)와 스토리(Story)가 만납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현장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사실과 그 뒤에 얹힌 사연들을 풀어봄으로써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팩토리 FACT STORY

S급 팩트 스토리에 답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수 손담비와 애프터스쿨이 현란한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 화려한 영상만큼이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각광 받았던 삼성 애니콜 '햅틱 아몰레드' TV 광고다. '자체발광'이라는 콘셉트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 광고는 2009년 한국CM전략연구소가 조사한 8월 광고효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들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10월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정식으로 양산한 지 햇수로 10년을 맞이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07년 초 일본 교세라의 휴대폰 및 국내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에 소량의 중소형 OLED 패널을 탑재시켜 아몰레드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같은해 9~10월 정식으로 충남 천안에 양산 라인을 가동, 일본 주요 공급선에 피쳐폰용 패널을 납품하면서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현재는 아몰레드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혼재돼 사용된다. OLED는 기술적으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뉘지만 현재는 대부분 제품에 능동형 OLED, 즉 아몰레드가 쓰이고 수동형 OLED는 높은 해상도나 색재현율이 필요치 않은 극소수의 제품에만 쓰인다. 아몰레드는 'AM-OLED'라는 학계 용어를 그대로 붙여 삼성이 만든 일종의 마케팅 용어였다.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전기 자극에 의해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기존 LCD(액정표시장치)처럼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액정 등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완벽한 색재현율 등의 장점에 힘입어 당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이러한 제품의 특징점을 바탕으로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패널 상용화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시장성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은 LCD가 붐을 일으킬 때여서 중소형 OLED 제품 개발에 눈돌린 경쟁사가 거의 없었고 일본 경쟁업체들은 '후지산을 물구나무로 오르는 것이 낫다'며 제품의 양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경제어젠 김민호 기자 안덕 기호 머니가 머니에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N 네이버에서 머니투데이

Ch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실시간 급상승 >

- ▲ '88세' 신구 "심장박동기 27지막 작품될 수도"
-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2음 없으면 공개 연애 안 해
- 김지민, ♥김준호 '사회적 : 선 굿기?... "문 열려있다"
- ▲ "예비 형수가 과거 내 원나 60취야 한다 vs 죄는 아나
- ▲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차 2집 사면 큰일나요[부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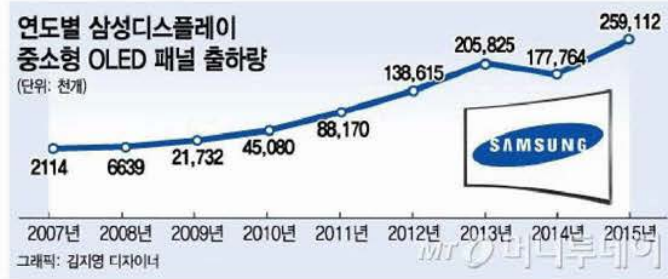
베스트클릭 >

종합

- 가수 최성봉 발견...전날 5
- '테란 3대장' 황... '배달 알'
- '강남 4구'라 토막...준강남
- "여보 내가 졸편 집 앞서 '자
- [단독]웨이크역에 비.김태: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 머니투데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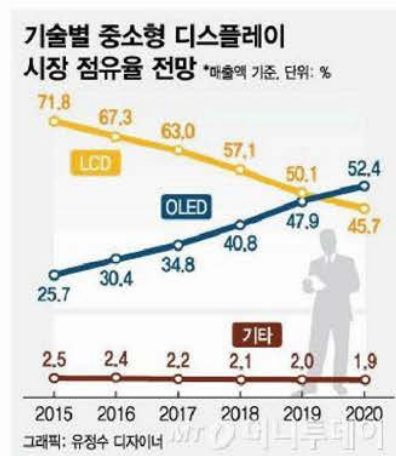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몰레드 패널 정식 양산 이후 모바일 IT 기기의 발전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아몰레드 패널 기술력도 약진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82.7%)을 제외하고 매년 90%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95.3%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태블릿 PC '갤럭시탭 7.7', 소니의 게임기 'PS비타' 등에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로 활용처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211만장에 불과했던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2억5911만2000장으로 약 10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난 2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패널용 중소형 OLED 출하량은 9838만대로 1억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20년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제품의 매출 비중은 52.4%로 LCD 점유율(45.7%)을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이다. 지난해 OLED 비중은 25.7%, LCD 비중은 71.8%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57%

비공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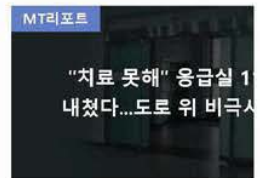


김성은 gttsw@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취문 구독 | 기자의 다른기사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최신뉴스

산업

암환자 괴롭히는 전이, 항암·방재별집 진양철 앓은 '섬망'...야말하는 번역기, 누적 다운로드 엘앤에프, 음극재 시장 도전장. 바람개비 돌아가기 시작한 해

오늘의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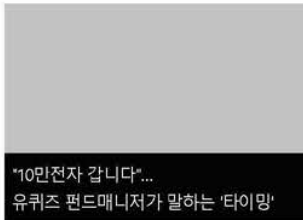
많이 본 뉴스



첫번째 댓글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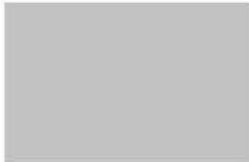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치료..."빚 내서 집 사면 큰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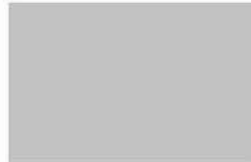


"10만전자 갑니다"...
유퀴즈 펀드매니저가 말하는 '타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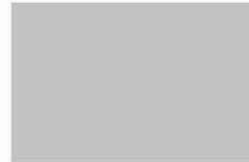
尹대통령, 오늘 베트남 정상회담...500개사 비즈니스 포럼도
"선행학습 광고 땀 과테로"...사교육 잡을 '공교육 정상화' 법안은?
르포 "재료 썩어나가"...오염수 공포에 텅빈 횃집, 고기집 전업고
"위안화 뜬 이유는 美...中 '기축통화' 2009년부터 준비했다"
뉴욕마감 260달러 탈환한 테슬라...아마존 AI센터 1억弗 투자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전원사망 추정...잔해단 발견



"엄마는 쉬고, 아빠는 힘내"...
성차별 논란



평양서 냉면 먹방...北유튜브
채널 '사용중지'



100번의 번개 한 장에 담으
니...악마의 손짓?



공감
'값싼' 임금 오
한국 오는 순



비공감
전부자 언니
명품 휘감은

오피니언 >



부활하는 일경제...
야
기자수첩



남만닥터 주석중의
광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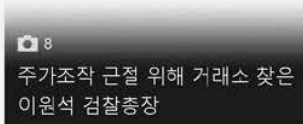
수장 찾은 공공기관
기자수첩

the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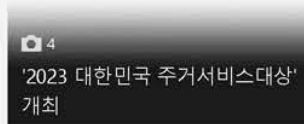


[기자수첩] 부활하는 일경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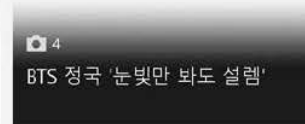
포토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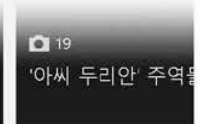
8
주가조작 근절 위해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4
'2023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개최



4
BTS 정국 '눈빛만 봐도 설렘'



19
'아씨 두리안' 주역들

냉동 삼겹살 왜 비쌀까??
#shorts / 싸비싸

현금을 중고로 웃돈 주고 사는
이유

몽클레어 패딩값의 비밀
#shorts / 싸비싸

몽클레어 패딩
싸비싸

머니투데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뉴스	증권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경제정책	금융	뉴스	데스크칼럼	연예	핫이슈
증권	벤처·스타트업	시세/공시	사내칼럼	스포츠	실시간급상승
정치	블록체인	포인트&전략	현장리포트		베스트클릭
부동산	문화	펀드	사외칼럼		사람&
국제경제	포토	종목대해부	SUCCESS		
사회	영상	베스트리포트	SCIENCE		
산업	전체기사	MY스톡			
IT					

전문지·서비스	MT해양	엠피워드	매거진	캠페인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VIP 머니투데이	the300	이로운넷	머니S	U클린	 MT 페이스북	 MT
스타뉴스	thebell	PIXTA	더리더	클머니	 MT 인스타그램	 싱글파
스타일M	theL		대학경제		 MT 트위터	 부킹
스포츠코리아	유니콘팩토리		로피시엘		 MT 틱톡	 부킹
OSEN	PADO		레옹		 MT 네이버포스트	 부킹
키플랫폼	MTN		IZE			 부킹
티타임즈	노트넷					 부킹
MnB창업						 부킹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계전로 11 정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00.01.01 ISSN 2635-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정희경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학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연중발행]온라인 뉴스 서
[유효기간]2020.11



MoneyToday

뉴스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MT리포트

속보

이원석 '민원인들은 응'

Climbing Mt. Fuji on handstand? The Miracle of Samsung's '10 years of AMOLED'

MoneyToday | Sung-eun Kim

VIEW 34,306 | 2016.08.08 16:43



[FACTORY] Overcoming the mockery from Japanese companies, Samsung pioneers the market... Becomes an absolute powerhouse with production volume 100 times higher in 10 years.

[Editor's Note] Fact and Story meet. We aim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and industry by unraveling the interesting facts and stories hidden in the fields that lead our economy.

Under the brilliant stage lighting, singer Son Dam-bi and After School perform flashy dances and songs. This is a TV commercial for Samsung Anycall 'Haptic AMOLED', which has been spotlighted for its addictive melody and lyrics as well as its dazzling visuals. This advertisement that attempted to convey the concept of "self-luminous,"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public's mind, ranking first in the August 2009 advertisement effectivenes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M Strategy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8th, Samsung Display will celebrate its ten-year anniversary of the official mass-production of AMOLED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panels in October.

In early 2007, Samsung Display confirmed AMOLED's marketability by applying a handful of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s in Kyocera's mobile phones of Japan and in iRiver's MP3 players of Korea.

In September and October of the same year, a mass production line started its official operation in Cheon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o supply feature phone panels to major Japanese suppliers. This was the opening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market in earnest.

Currently, the term AMOLED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is technically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types, however, active type OLED, or AMOLED, is used in most products, and passive type OLED is used only in a very small number of products that do not require high resolution or color reproduction rate. AMOLED was a marketing jargon coined by Samsung by affixing the two syllables of the academic term "AM-OLED."

Each pixel of OLED emits light on its own when electrically stimulated. Therefore, OLED does not require separate backlights, color filters, or liquid crystals like the existing LCD (Liquid Crystal Displays). It was lauded at the time as the "dream display" due to its thinness, light weight, and perfect color reproduction rate. Based on such feature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bendable or foldable panels is also currently under progress.

At the time when Samsung Display announced its intention to mass-produc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roducts, other global companies expressed little interest, dismissing it as having no marketability.

Particularly in the mid-2000s, when LCD was booming, few competitors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OLED products, and Japanese competitors devalued the mass production possibility, saying "it would be better to climb Mt. Fuji on handstand."

Samsung Display has emerged as an unparalleled powerhouse in the current small and medium-sized OLED display market thanks to its endeavors to walk down the uncharted path that no other competitors had taken before.

N 네이버에서 머니투데이

Ch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실시간 급상승

▲ '88세' 친구 "심장박동기 사
27 마지막 작품 될 수도"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2 음 없으면 공개 연애 안 해

— 김지민, ♥김준호 '사회적'
선 곳?... "문 열려있다"

▲ "예비 형수가 과거 내 원나
60 줘야 한다 vs 죄는 아냐

▲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차
2 집 사면 큰일나요 [부리지는]

베스트클릭 >

종합



가수 최성봉
발견...전날 4



'테란 3대장'
황...배달 알



'강남 4구'라니
토막...준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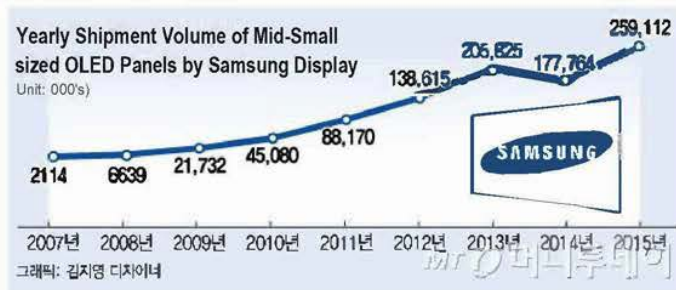


"여보 내가 졸
편 집 앞서"



[단독]웨이브
역에 바깥태

< >



According to a Samsung Display official, "Ever since the official mass production of AMOLED panels,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AMOLED panel technology has also made rapid progres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IT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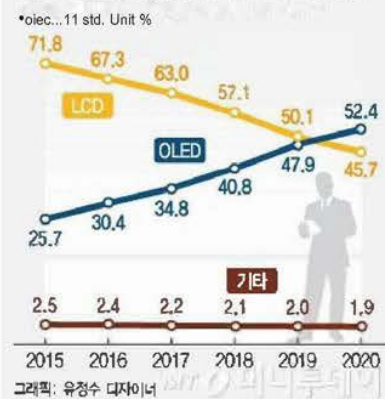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industry, Samsung Display's market share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market since 2007 has recorded over 90% annually with an exception for the year 2008 (82.7%). With a market share of 95.3% last yea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arket is monopolized by the company.

Samsung Display has installed the AMOLED panels on Samsung Electronics' smartphone 'Galaxy S', tablet PC 'Galaxy Tab 7.7', and Sony's game console 'PS Vita' to this date. Recently, it is expanding its use to wearable devices.

According to the industry,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shipment volume that was merely 2.11 million units in 2007 increased by more than 100 times to 259.1 million units last year. In particular,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OLED shipments for smartphone panels in the second quarter were 98.38 million units, placing the 100 million mark in sight.

According to global market research firm IHS, in the 2020 small and medium-sized display market, OLED products account for 52.4% of sales, surpassing the LCD market share (45.7%) for the first time ever. The ratio for OLED last year was 25.7 percent and 71.8 percent for LCD.

Forecast of Market Share of Mid-Small Sized Displays by Technolog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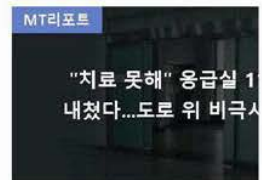
비공감 43%



김성은 gttsw@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N 위문 구독 | 기자의 다른기사



최신뉴스

산업

암환자 괴롭히는 전이, 항암방
재별집 진양철 앓은 '섬망'...야
'말하는 번역기', 누적 다운로드
앨앤에프, 음극재 시장 도전장.
바람개비 돌아가기 시작한 해

오늘의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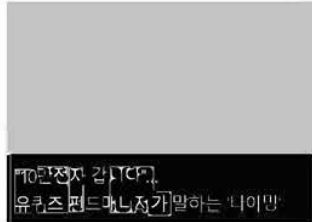
많이 본 뉴스



첫번째 댓글 작성하기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치료..."빚 내서 집 사면 큰일나요"



尹대통령, 오늘 베트남 정상회담...500개사 비즈니스 포럼도
"선행학습 광고 댄 과태료"...사교육 잡을 '공교육 정상화' 법안은?
르포 "재료 썩어나가"...오염수 공포에 텅빈 횃집, 고기집 전업고
"위안화 뜬 이유는 美...中 '기축통화' 2009년부터 준비했다"
뉴욕마감 260달러 탈환한 테슬라...아마존 AI센터 1억弗 투자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전원사망 추정...잔해만 발견



"엄마는 쉬고, 아빠는 힘내"...
성차별 논란



평양서 냉면 먹방...北유튜브
채널 '사용중지'



100번의 번개 한 장에 담으
니...악마의 손짓?



공감
'값싼' 임금 오
한국 오는 순



비공감
진부자 언니의
명품 휘감은

오피니언



부활하는 일경제...
야
기자수첩



남만닥터 주석중의
광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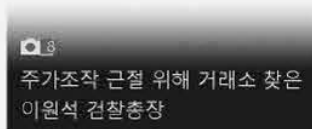
수장 찾은 공공기관
기자수첩

the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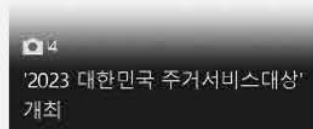


[기자수첩] 부활하는 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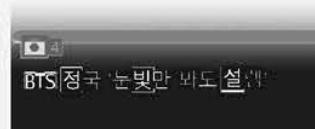
포토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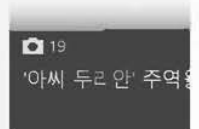
주가조작 근절 위해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2023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개최



BTS'정국' 눈빛만 봐도...
설



'아씨 두리 안' 주역...
영

냉동 삼겹살 왜 비쌀까??
#shorts / 싸비싸

현금을 중고로 웃돈 주고 사는
이유

몽클레어 패딩값의 비밀
#shorts / 싸비싸

몽클레어 패딩...
싸비싸

머니투데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뉴스	증권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경제정책	뉴스	최신기사	데스크칼럼	연예	핫이슈
금융	시세/공시		사내칼럼	스포츠	실시간급상승
증권	포인트&전략		현장리포트		베스트블릭
정치	펀드		사외칼럼		사람&
부동산	종목대해부		SUCCESS		
국제경제	베스트리포트		SCIENCE		
사회	MY스톡				
산업					
IT					

전문지·서비스	MT해양	앱어워드	매거진	캠페인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VIP 머니투데이	the300	이로운넷	머니S	U클린	MT 페이스북
스타뉴스	thebell	PIXTA	더리더	클머니	MT 인스타그램
스타일M	theL		대학경제		MT 트위터
스포츠코리아	유니콘팩토리		로피시엘		MT 틱톡
OSEN	PADO		레옹		MT 네이버포스트
키플랫폼	MTN		IZE		
티타임즈	노트넷				
Mn8창업					

MT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0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정희경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태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인종법위]온라인 뉴스 서
 [유효기간]2020.11



Registered No. 2024-0963

CERTIFICATE



GNS TRANSLATION & ADMINISTRATION OFFICE

#1405 Daeil Bldg, 12,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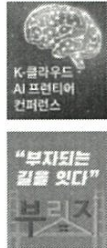


MoneyToday

≡ 뉴스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MT리포트 **속보** 이원석 민원인들은 응급

Climbing Mt. Fuji on handstand? The Miracle of Samsung's '10 years of AMOLED'

MoneyToday | Sung-eun Kim



VIEW 34,306 | 2016.08.08 16:43



[FACTORY] Overcoming the mockery from Japanese companies, Samsung pioneers the market... Becomes an absolute powerhouse with production volume 100 times higher in 10 years.

[Editor's Note] Fact and Story meet. We aim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and industry by unraveling the interesting facts and stories hidden in the fields that lead our economy.

Under the brilliant stage lighting, singer Son Dam-bi and After School perform flashy dances and songs. This is a TV commercial for Samsung Anycall 'Haptic AMOLED', which has been spotlighted for its addictive melody and lyrics as well as its dazzling visuals. This advertisement that attempted to convey the concept of "self-luminous,"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public's mind, ranking first in the August 2009 advertisement effectivenes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M Strategy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8th, Samsung Display will celebrate its ten-year anniversary of the official mass-production of AMOLED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panels in October.

In early 2007, Samsung Display confirmed AMOLED's marketability by applying a handful of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s in Kyocera's mobile phones of Japan and in iRiver's MP3 players of Korea.

In September and October of the same year, a mass production line started its official operation in Cheon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o supply feature phone panels to major Japanese suppliers. This was the opening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market in earnest.

Currently, the term AMOLED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is technically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types, however, active type OLED, or AMOLED, is used in most products, and passive type OLED is used only in a very small number of products that do not require high resolution or color reproduction rate. AMOLED was a marketing jargon coined by Samsung by affixing the two syllables of the academic term "AM-OLED."

Each pixel of OLED emits light on its own when electrically stimulated. Therefore, OLED does not require separate backlights, color filters, or liquid crystals like the existing LCD (Liquid Crystal Displays). It was lauded at the time as the "dream display" due to its thinness, light weight, and perfect color reproduction rate. Based on such feature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bendable or foldable panels is also currently under progress.

At the time when Samsung Display announced its intention to mass-produc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roducts, other global companies expressed little interest, dismissing it as having no marketability.

Particularly in the mid-2000s, when LCD was booming, few competitors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OLED products, and Japanese competitors devalued the mass production possibility, saying "it would be better to climb Mt. Fuji on handstand."

Samsung Display has emerged as an unparalleled powerhouse in the current small and medium-sized OLED display market thanks to its endeavors to walk down the uncharted path that no other competitors had taken before.

N 네이버에서 머니투데이

Ch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실시간 급상승

▲ '88세' 신구 "심장박동기 사
27 지막 작품될 수도"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2 음 없으면 공개 연애 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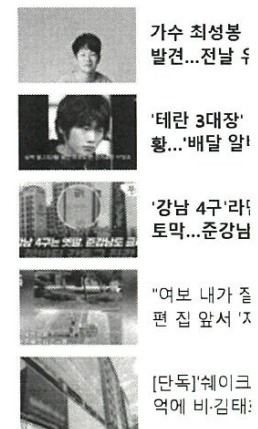
김지민, ♥김준호 '사회적 :
선 곳기?... "문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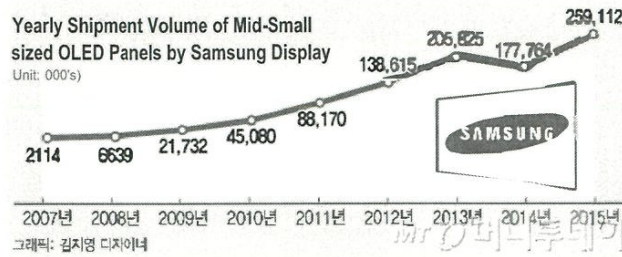
▲ "예비 형수가 과거 내 원나
80 직야 한다 vs 죄는 아나

▲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차
2 집 사면 큰일나요 [부딪치]

베스트클릭

종합





According to a Samsung Display official, "Ever since the official mass production of AMOLED panels,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AMOLED panel technology has also made rapid progres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IT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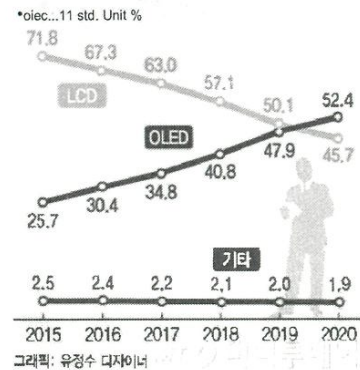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industry, Samsung Display's market share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market since 2007 has recorded over 90% annually with an exception for the year 2008 (82.7%). With a market share of 95.3% last yea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arket is monopolized by the company.

Samsung Display has installed the AMOLED panels on Samsung Electronics' smartphone 'Galaxy S', tablet PC 'Galaxy Tab 7.7', and Sony's game console 'PS Vita' to this date. Recently, it is expanding its use to wearable devices.

According to the industry,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OLED panel shipment volume that was merely 2.11 million units in 2007 increased by more than 100 times to 259.1 million units last year. In particular, Samsung Display's small and medium-sized OLED shipments for smartphone panels in the second quarter were 98.38 million units, placing the 100 million mark in sight.

According to global market research firm IHS, in the 2020 small and medium-sized display market, OLED products account for 52.4% of sales, surpassing the LCD market share (45.7%) for the first time ever. The ratio for OLED last year was 25.7 percent and 71.8 percent for LCD.

Forecast of Market Share of Mid-Small Sized Displays by Technolog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57%

비공감 43%



김성은 gttsw@mt.co.kr

아낀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N 쉬운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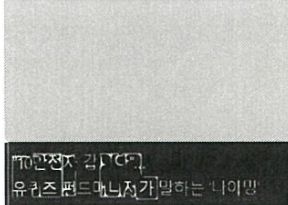
기자의 다른기사



첫번째 댓글 작성하기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치료..."빚 내서 집 사면 큰일나요"



尹대통령, 오늘 베트남 정상회담...500개사 비즈니스 포럼도
"선행학습 광고 댄 과태료"...사교육 잡을 '공교육 정상화' 법안은?
르포 "재료 썩어나가"...오염수 공포에 텅빈 횡집, 고기집 전업고
"위안화 뜯 이유는 美...中 '기축통화' 2009년부터 준비했다"
뉴욕마감 260달러 탈환한 테슬라...아마존 AI센터 1억\$ 투자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전원사망 추정...잔해만 발견



"엄마는 쉬고, 아빠는 힘내"...
성차별 논란



평양서 냉면 먹방...北유튜브
채널 '사용중지'



100번의 번개 한 장에 담으
니...악마의 손짓?



공급
'값싼' 임금 오
한국 오는 순



비중감
편부자 연니
명품 휘감은

오피니언



부활하는 일경제...
야
기자수첩



낭만닥터 주석중의
광화문



수장 찾은 공공기관
기자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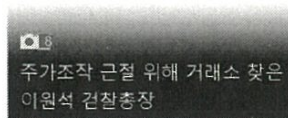
the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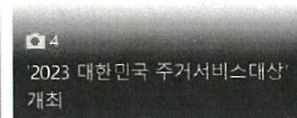
[기자수첩] 부활하는 일경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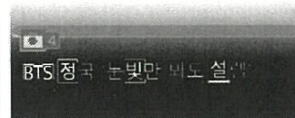
포토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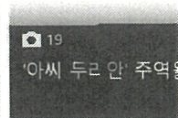
주가조작 근절 위해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2023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개최



BTS 정국 눈빛만 봐도 설
레



'아씨 두리 안' 주역
출

냉동 삼겹살 왜 비쌀까??
#shorts / 싸비싸

현금을 중고로 웃돈 주고 사는
이유

몽클레어 패딩값의 비밀
#shorts / 싸비싸

몽클레어 패딩
싸비싸

머니투데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0815273999053&VBC>

3/4

COMPL-1351Contentions_0000744



뉴스		증권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경제정책	금융	뉴스	최신기사	데스크칼럼	연예	핫이슈
증권	벤처·스타트업	시세/공시		사내칼럼	스포츠	실시간급상승
정치	블록체인	포인트&전략		현장리포트		베스트클릭
부동산	문화	펀드		사외칼럼		사람&
국제경제	포토	종목대해부		SUCCESS		
사회	영상	베스트리포트		SCIENCE		
산업	전체기사	MY스톡				
IT						

전문지·서비스	MT해양	엠퍼워드	매거진	캠페인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VIP 머니투데이	the300	이로온넷	머니S	U클린		MT 페이스북
스타뉴스	thebell	PIXTA	더리더	쿨머니		MT 인스타그램
스타일M	theL		대학경제			MT 트위터
스포탈코리아	유니콘팩토리		로피시엘			MT 틱톡
OSEN	PADO		레온			MT 네이버포스트
키플랫폼	MTN		IZE			MT
타타임즈	노트넷					MT
MnB창업						MT

MT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환·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0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정희경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택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인종법위윤라인 뉴스 서
(유효기간)20211



머니투데이

뉴스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MT리포트

속보 이원석 민원인들은 응대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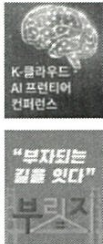


VIEW 34,306 | 2016.08.08 16:43



N 네이버에서 머니투데이

Ch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FACTORY]日업체 비웃음 딛고 시장 개척... 10년 만에 생산량 100배 '절대 강자'

[편집자주] 팩트(Fact)와 스토리(Story)가 만납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현장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사실과 그 뒤에 엮인 사연들을 풀어봄으로써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팩토리FACT STORY S급 팩트 스토리에 답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수 손담비와 애플러스가 현란한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 화려한 영상만큼이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각광 받았던 삼성 애니콜 '햅틱 아몰레드' TV 광고다. '자체발광'이라는 콘셉트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 광고는 2009년 한국CM전략연구소가 조사한 8월 광고효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들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10월 아몰레드(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정식으로 양산한 지 햇수로 10년을 맞이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07년 초 일본 교세라의 휴대폰 및 국내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에 소량의 중소형 OLED 패널을 탑재시켜 아몰레드의 시장성을 확인했다.

같은해 9~10월 정식으로 충남 천안에 양산 라인을 가동, 일본 주요 공급선에 피쳐폰용 패널을 납품하면서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현재는 아몰레드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혼재돼 사용된다. OLED는 기술적으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뉘지만 현재는 대부분 제품에 능동형 OLED, 즉 아몰레드가 쓰이고 수동형 OLED는 높은 해상도나 색재현율이 필요치 않은 극소수의 제품에만 쓰인다. 아몰레드는 'AM-OLED'라는 학계 용어를 그대로 붙여 삼성이 만든 일종의 마케팅 용어였다.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전기 자극에 의해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기존 LCD(액정표시장치)처럼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액정 등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완벽한 색재현율 등의 장점에 힘입어 당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이러한 제품의 특징점을 바탕으로 구부리거나 휘 수 있는 패널 상용화에 대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시장성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은 LCD가 붐을 일으킬 때여서 중소형 OLED 제품 개발에 눈돌린 경쟁사가 거의 없었고 일본 경쟁업체들은 '후지산을 물구나무로 오르는 것이 낫다'며 제품의 양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경제어휘 사전에 기재 안된 기어 머거 가 덕분에 차세대디스플레이는 현재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실시간 급상승

- ▲ '88세' 신구 "심장박동기 시작 작품될 수도" 27
-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음 없으면 공개 연애 안 해 2
- 김지민, ♥김준호 '사회적 : 선 굿기?... "문 열려있다"
- ▲ "예비 형수가 과거 내 원나 60
- ▲ 부동산 시장, 대졸로 연명차 2
- ▲ 집 사면 큰일나요! "부릿지"

베스트클릭

종합



가수 최성봉 발견...전날 9



'테란 3대장' 황... '배달 알'



'강남 4구'라 토막...준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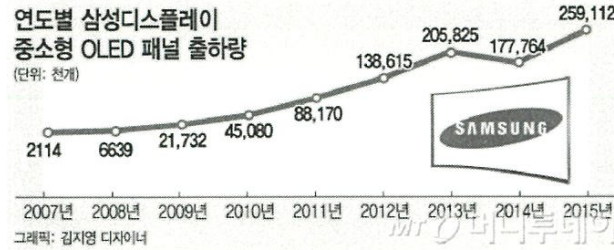
"여보 내가 졸 편 집 앞서 '자



[단독]웨이브 역에 비김대: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로 올라섰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몰레드 패널 정식 양산 이후 모바일 IT 기기의 발전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아몰레드 패널 기술력도 약진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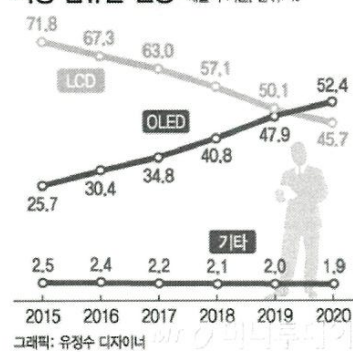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82.7%)을 제외하고 매해 90%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95.3%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태블릿 PC '갤럭시탭 7.7', 소니의 게임기 'PS비타' 등에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로 활용처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211만장에 불과했던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2억5911만2000장으로 약 10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난 2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패널용 중소형 OLED 출하량은 9838만대로 1억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20년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제품의 매출 비중은 52.4%로 LCD 점유율(45.7%)을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이다. 지난해 OLED 비중은 25.7%, LCD 비중은 71.8%였다.

기술별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전망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감 57%

😞 비공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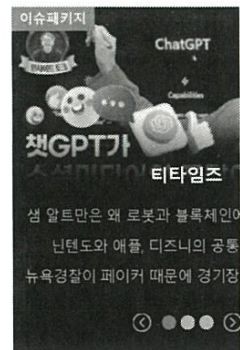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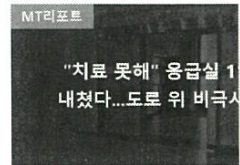
김성은 gttsw@mt.co.kr

야생하체유!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N 쉬운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최신뉴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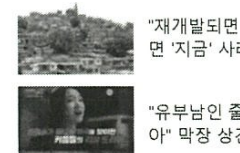
암환자 괴롭히는 전이, 항암·방재벌집 진앙철 앞은 '섬망'...아·'할하는 번역가', 누적 다운로드·열애플, 음극재 시장 도전장·바람개비 돌아가기 시작한 해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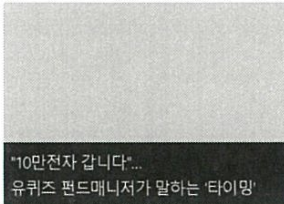
일주일 1개월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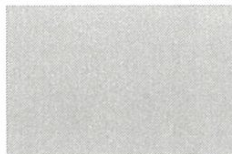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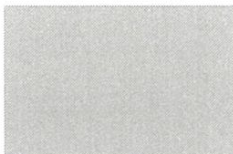
첫번째 댓글 작성하기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동산 시장, 대출로 연명치료..."빚 내서 집 사면 큰일나요"



尹대통령, 오늘 베트남 정상회담...500개사 비즈니스 포럼도 "선형학습 광고 댄 과태료"...사교육 잡을 '공교육 정상화' 법안은? 르포 "재로 썩어나가"...오염수 공포에 텅빈 횡집, 고기집 전업고 "위안화 뜯 이유는 美...中 '기축통화' 2009년부터 준비했다" 뉴욕마감 260달러 탈환한 테슬라...아마존 AI센터 1억\$ 투자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전원사망 추정...잔해만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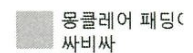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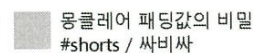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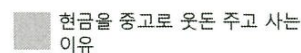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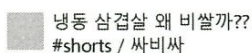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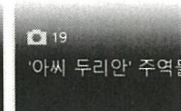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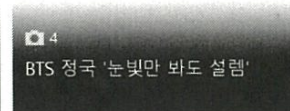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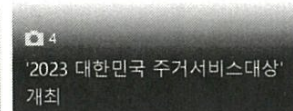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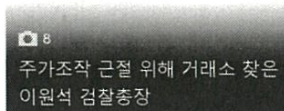
오피니언



the300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후지산 물구나무로 오르기? 삼성 '아몰레드 10년'의 기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0815273999053&VBC

3/4

COMPL-1351Contentions_0000744



뉴스	증권	헬스바이오	칼럼	연예	이슈
경제정책	금융	뉴스	데스크칼럼	연예	핫이슈
증권	벤처스타트업	시세/공시	사내칼럼	스포츠	실시간급상승
정치	블록체인	포인트&전략	현장리포트		베스트클릭
부동산	문화	펀드	사외칼럼		사람&
국제경제	포토	종목대해부	SUCCESS		
사회	영상	베스트리포트	SCIENCE		
산업	전체기사	MY스톡			
IT					

전문지·서비스	MT해양	엠퍼워드	매거진	캠페인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VIP 머니투데이	the300	이로온넷	머니S	U클린	MT 페이스북
스타뉴스	thebell	PIXTA	더리더	콜머니	MT 인스타그램
스타일M	theL		대학경제		MT 트위터
스포탈코리아	유니콘팩토리		로피시엘		MT 틱톡
OSEN	PADO		레온		MT 네이버포스트
키플랫폼	MTN		IZE		
티타임즈	노트넷				
MnB창업					

MT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계천로 11 정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0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정희경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택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ISN
 [인증번호]로라인 뉴스 서
 [유효기간]2020.11

등부 2024년 제 0963호

Registered No. 2024-0963

외 국 어 번 역 행 정 사 확 인 서

CERTIFICATE OF LICENSED
TRANSLATION

나는 첨부된 문서가 본 사무소에 의하여 번역
이 되었으며 그 번역이 진실되고 원본과 일치
한 것임을 증명한다.

I hereby certify that GNS CO.,LTD., translated
the attached document.

The translation is true, correct and accurate
to the original.

위 번역문은 원본과 일치하게 번역하였기에 대
한민국 행정사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하여 번역
확인증명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

Since the above translation was translated to
match the original, the Certificate of
Translation was signed and seal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0 of
th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Act in the
Republic of the Korea.

2024 년 03 월 06 일
위 사무소에서 인증한다.

This is hereby confirmed on this 6th day of
March 2024 at this office.

대한행정사협회
등록번호 : 제 267호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Registration Number : 267

羅 完 植



wan sik Ro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증 번호:15300000110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License No.15300000110

지앤에스 번역행정사 사무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1405호(인사동, 대일빌딩)

GNS TRANSLATION & ADMINISTRATION OFFICE
#1405 Daeil Bldg, 12,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